

‘미완의 연구영역’ 고려미술 본격 조명

“연화사 7층석탑 부조상 최초 불회도 조각” 문명대 교수

“원 간섭기에도 중국 송대 불교미술 영향” 최성은 교수

한국미술사학 ‘개성의 ...’ 세미나 열어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에서 고려 미술 연구는 그동안 미완의 연구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경주를 빼고 신라 문화를 말할 수 없듯, 500년 고려 미술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 문화의 중심지였던 개성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분단 현실이 남한 유물에 한정된 반복 연구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개성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고려 미술 전반의 특징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성의 고려미술’을 주제로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한국불교미술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성의 고려미술’ 주제 학술대회는 이전 시대에 비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고려 미술 연구의 기초를 닦는 자리였다.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고려 법상종 미술의 전개와 연화사 칠층석탑 불상 조각의 연구’ 주제 발표에서 “연화사 7층석탑의 각 층 몸체(탑신) 사면에 새겨진 부조 조각상은 불회도 장면을 도

상화한 우리 나라 최초의 탑상 조각”이라고 밝혔다. 석탑에 부조상을 새기는 것은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법당의 후불화처럼 법회 장면을 조각하는 것은 1349년에 조성된 경천사 10층석탑에서부터 나타난다는 특이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1010년 조성된 개심사 5층 석탑에도 기단부에 8부중, 1층 탑신에 인왕상을 새기는 정도였는데, 1020에 조성된 연화사 7층 석탑에 법회 장면을 조각한 탑부조 불회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불탑 내지 탑상 조각에 획기적인 변모가 일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논문만 제출한 최성은(이화여대) 교수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기에도 고려 미술은 여전히 중국 송대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밝혔다. 개성 민천사에서 출토된 금동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원 간섭기 불교미술의 특징을 살펴본 최 교수는 “1313년 충선왕이 국가차 차원에서 일으켰던 대규

모 불사의 흔적을 일러주는 유일한 자료인 불상은 현재 전하는 중국 강남 지방의 남송 시대 불화와 매우 유사한 표현 양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몽고의 지배 아래서도 고려와 중국 강남 지역은 문화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예로서 조각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를 제출한 임영대(중앙대 강사) 씨는 “공민왕릉의 무인상은 고려 후기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신장상과 동일한 형태의 갑옷을 입고 있다”며 “특실한 불교신자였던 공민왕의 무덤에 조성한 무인상이 불화 속 신장상의 갑옷 도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진흥섭(이화여대) 교수는 “고려시대 불교문화는 조선시대 승유역불 정책과 같은 인위적 파괴와 자연적 훼손에 방치돼 왔다”며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전에 남겨진 현상만이라도 보존하고 조사 연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개성 현화사 칠층석탑.

능산리 절터 목간서 새로운 백제 절 이름

자외선 판독 ‘子基寺’ 확인

국립부여박물관은 능산리 절터(사적 434호)에서 지난 8월 발굴한 목간 23점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 의뢰해 적외선으로 판독한 결과, 한 목간에서 ‘자기사(子基寺)’라는 글자를 확인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는 <삼국사기> 등 문헌기록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백제 시대 절 이름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드문 사례다. 박물관 측은 이 목간의 용도를, ‘자기사’라는 절에서 능산리에 있던 절에 물품 등을 보내면서 매년 표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능산리 절터에서는 지난 8월에도 ‘보희사(寶喜寺)’라는 절 이름이 새겨진 목간이 발굴되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백제 절이 11개에 지나지 않고, 백제 시대 유물을 통해 확인된 절 이름은 충남 공주의 ‘대통사(大通寺)’ 한 곳뿐이다.

권형진 기자

갈수록 왕실사찰 위용 드러내는 회암사터

확인된 건물터만 41곳

봉황 새긴 기와 등 출토

경기 양주 회암사터(사적 128호)에 대한 발굴이 진행될수록 조선시대 왕실사찰로서의 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 공동발굴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회암사터 4차 발굴조사 결과 5단지 동쪽과 4단지(전체 조사면적 2천50평)에서 고려말~조선 전기 건물터 18곳을 새로 확인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지난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터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모두 41곳의 건물터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18곳의 건물 배치는 고려말 국은 이색이 회암사 중창 때 기록해 놓은 <천보산 회암사 구조기>의 내용과 크게 달라 회암사가 조선 초기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창을 거듭하면서 사역을 확대해 나갔음을 확인시켜 준다. 기전문화재연구원 김무중 연구원은 “3차 발굴까지의 건물 배치가 이색의 기록과 일치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시대 이후 왕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의 중창과 중수를 거치며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암사터에서 출토된 용머리 막새기와.

출토된 유물들도 왕궁에서나 사용되던 최상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용이나 봉황이 새겨진 막새기와가 출토되는가 하면 왕실용 자기들도 다양 출토됐다. 이 가운데는 1611년 광주 탄발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폐사 이후 승려들의 복구과정에서도 왕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암사터 발굴조사는 2004년까지 계속되며, 최근 1만 1천 평이던 사적 면적이 10만 평으로 확대 지정됐다.

권형진 기자



◇최근 출간한 <연행록 전집>(전 100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기중 교수.

임기중 교수 ‘연행록’ 전집 100권 출간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집대성’

500여 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 ‘연행록(燕行錄)’ 350여 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동국대 국문학과 임기중 교수(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장)가 목록 작성과 자료 수집을 시작한 지 26년만에, 국내에 전하는 ‘연행록’을 집대성한 <연행록 전집>(동국대 출판부) 100권을 최근 출간한 것이다.

‘연행록’은 고려말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원경(원 북경)을 다녀와서 보고들은 것을 기록한 일종의 기행문. 당시의 한 중 관계와 동아시아 문화교류는 물론 종교, 복식, 음식, 무역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인문학의 보고(寶庫)다.

<연행록 전집>은 337종의 연행록과 7종의 연행지도 등 354종의 연행록 관련 자료에, 425건 5만8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다. 한글로 된 것과 한문으로 된 것이 섞여있다. 청나라를 다녀온 기록이 가장 많지만(286건) 원나라 기록도 1건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연행록들에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종교, 문화에 관한 상세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교수는 “조선시대 연행사들의 경우 체류 기간이 40일 내외로 정해져 있었는데, 공식적

인 일정을 마치면 늘 다양한 선진 문화를 체험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 사원을 구경하는 일이었다”며 “불교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화가이자 문인인 김창업(1658~1721)이 지은 <열하일기>나 김육(1580~1659)의 <조경일록>

등에는 당시 북경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복식이나 음식, 예절 드러는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 때도 북경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라마 불교 사원이 많이 있었으며 남방에서 온 스님들이 맨발로 발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공양한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도 흥미롭다.

<연행록 전집> 발간의 가장 큰 의의는 존재조차 몰랐던 연행록들을 발굴해 한 곳에 모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 현종 때 최호부가 지은 <사향제상봉록>,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이 1822년 지은 <연행록> 등 36건은 이름만 확인했을 뿐 내용은 실지 못했다. 연행록이 개인 기록 성격이 강하다보니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친필로 쓴 귀중본이라 쉽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행록 연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임 교수 자신도 그동안 관련 자료 수집에 치중하느라 내용 분석과 같은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연행록과 동아시아 연구’ 국제학술회의는 바로 동아시아에서 연행록이 가진 역사적, 사상적, 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b.t.n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1,40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 x 262cm(길이)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직물성상수와 등물성상수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시원시원한 느낌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